

# 중국 조선족, 한족, 및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환경, 이용실태 및 영향요인\*

A comparative Study on Media Environments and Media use of  
Korean-Chinese, Chinese, and Korean Adolescen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원 구정숙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박혜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조복희

College of Human Ecology, Univ. of Kyunghee  
*Senior researcher : Jungsook Koo*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 Hyewon Park Choi*  
College of Human Ecology, Univ. of Kyunghee  
*Professor : Bokhee Cho*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A comparison of students' media environments and media use patterns among Korean-Chinese in Yanji and Shenyang, Chinese students in Yanji and Korean students in Ulsan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research surveyed 3,241 students between 10-18 years old on their home media environments, media use

Corresponding Author: Hyewon Park Choi,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29 Mugeo 2-dong, Nam-gu, Ulsan, Korea  
Tel: 82-52-259-2367 E-mail: hyewonc@ulsan.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patterns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locus of control. Korean children not only have more media in their homes, but they are also heavier users of computers and other media than the other two groups. Despite the lower rates of access to computers and other media at home, Korean-Chinese in Yanji reported more use of media including TV, VCRs and computers at the computer rooms than Chinese students in Yanji. Additional analyses revealed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omputer gaming at home and at computer rooms and achievemen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home environments. Impacts of Korean culture and societal changes on the Korean-Chinese use of media, and choice of media language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조선족(Korean-Chinese), 한족(Chinese), 한국인(Korean), 청소년(adolescent), 미디어이용(media use),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 1. 서 론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증가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에서 이러한 뉴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이 있는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공동으로 2003년 12월 한달간 실시한 '2003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국민들 중 66.7%가 월 1회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6-19세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터이용율이 9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컴퓨터 이용자들은 주 평균 16.2시간 컴퓨터를 이용하며, 이용자들의 55.9%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치들은 모두 6개월 전보다 조금씩 증가된 것이다. 컴퓨터이용과 더불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이용인데,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전체 인구의 65.5%로 2002년 12월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인터넷이용 인구수가 3,000만명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10대의 이용율은 94.8%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김유미, 2000)에 의하면, 초등학생(6학년)은 인터넷을 매일 하거나(38.5%), 주 2-3회(31%)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2시간이 46.5%로 청소년들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이들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이미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예: 김유미, 2000; 박지인, 2000; 배영, 2001; 성영혜, 이주연, 2000; 손경애, 2001; 채병건, 1995; 황상민, 2000; Griffiths, 1997; Stewart & Choi, 2003).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중독이 사회문제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이에 관해 많은 연구들(김광웅, 유미숙, 이지향, 2004;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박구연, 2001; 박성혜, 2001; 송원영, 1998; 안혜숙, 2002; 이소영, 2000; 이해경, 2001; 조남근, 양동규, 2001; 황상민, 흥희영, 이수진, 2001; Borzekowski & Rickert, 2001; Griffiths, Miller, Gillespie, & Sparrow, 1999; Young, 1999)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한 조사 연구(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9-19세 청소년 중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용자가 1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컴퓨터 외에도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TV, 비디오, 음향기(카셋트녹음기, CD플레이어, MP3 등), 라디오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며 보낸다. 특히 TV시청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12세까지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는 다소 감소하며, 수면을 제외하면 단일한 활동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다(Liebert & Sprafkin, 1988). 더욱이 비디오의 급속한 보급으로 TV 매체가 방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어 TV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

다(문혁준,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미디어 환경이 중국 조선족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어떠한 상황인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미디어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보고에 따르면 2004년 7월 현재 중국 전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8,700만 명으로, 이는 1년 전 조사에 비해 1,9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아직은 고교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이 인터넷붐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18-24세 인터넷 인구는 39.1%에 달하고 18세 이하도 17.3%에 이른다. 중국 전역의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연변 자치주를 비롯한 조선족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구에는 조선족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며, 중국속에서 한국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중국에 위치하면서도 한국과 인접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연변 지역의 조선족의 미디어환경은 한국의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서 한국통신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메가팩스 협력사인 인프라넷과 공동으로 중국 연변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가정이나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 내 인터넷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연변 지역의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조선족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조선족 학교 및 학생수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모국어 상실에 대한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허청선, 이광호, 1995). 또한 무엇보다도 부모가 한국등 해외취업 등으로 가정이 봉괴되는 현상이 빈번하며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감형성, 적응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족 아동/청소년의 환경변화와 문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연변 자치주의 아동/청소년과 한국아동/청소년 외에도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조선족

집거촌인 심양의 아동/청소년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조선족 지역 외 동북3성의 하나인 요녕성 성도인 심양시에도 조선족이 20만명 이상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연변조선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인구 680만의 중국 최대의 중공업도시이며, 한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지역인 심양은, 중국 개혁과 산업화의 물결로 인한 영향을 연변지역보다는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지역이므로 뉴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더 급속할 것으로 보인다.

TV 및 비디오 시청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Anderson & Collins, 1988)과 독서 및 놀이시간 단축(박애서, 1986), 창의성 저하(박성은, 1990), 낮은 성취수준(이미섭, 1996), 공격행동 (Liebert & Sprafkin, 1988) 등의 부정적 영향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그 중요성을 반영한다.

아이들의 미디어이용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환경적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충동성, 대인관계 불안, 공격성과 컴퓨터게임 몰입정도(박성혜, 2001; 송숙자, 심희옥, 2003; Colwell & Payne, 2000),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및 부모의 미디어이용패턴과 청소년의 컴퓨터이용(채병건, 1995), 아동의 가치관과 컴퓨터사용(류병희, 1997), 아동의 학업성취와 TV시청량(정광식, 1992),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동의 TV시청량(김남정, 2001; 박지인, 2000; 이미섭, 1996), 사려성과 TV시청시간(김남정, 2001), 창의성과 TV 및 비디오 시청시간(박성은, 1993), 아동의 유능감과 TV시청(김의정, 1997), 아동의 지적능력, 부모의 미디어이용, 가정환경과 아동의 미디어이용(박혜원, 박문태, 1998) 간의 관계들을 고찰하고 있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는 성취동기나内外통제와 같은 특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가정의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변인도 미디어이용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중국이라는 국가환경 속에 살지만 조선족 자치주민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요녕성 성도인 대도시 심양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환경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연변의 한족 및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연변조선족, 심양조선족, 연변한족, 그리고 한국 가정의 미디어종류별 보유 및 인터넷과 전자우편사용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II.** 연변조선족, 심양조선족, 연변한족,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종류별 이용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미디어 종류에 따라, 연변조선족과 심양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조선어와 중국어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V.**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터(인터넷) 중독자의 비율은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V.**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시간과 개인적 특성(성취동기, 내외통제), 그리고 가정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소학교 4학년 아동,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및 그 학부모로서, 연변조선족은 연변자치주 주도인 연길시의 소학교 학생 258명(부모246명), 중학교 학생 210명(부모 208명), 고중학교 학생 146명(부모 146명), 심양조선족은 요녕성 심양시 소학교 학생 208명(부모 198명), 중학교 학생 213명(부모 210명), 고중학교 학생 372명(부모 89명), 연변한족은 연길시의 소학교 학생 202명(부모 241명), 중학교 학생 277명(부모 276명), 고중학교 학생 297명(부모 없음), 그리고 한국은 울산광역시 초등학생 367명(부모 380명), 중학생 301명(부모 259명), 고등학생 390명(부모 253명)으로 학생 총 3,241명, 부모 총

2,506 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집단별로 부모의 나이를 보면, 아버지는 연변한족 외는 40대가 가장 많은데 연변한족의 경우는 고등학교 부모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평균연령이 낮아진 데 기인한다. 어머니 나이는 대체로 30대가 가장 많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40대도 30대와 비슷하게 많았다. 부모 학력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고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과(전문대)이상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연변조선족은 부 32.1%, 모 26.2%, 연변한족은 부 42.4%, 모 35.4%, 심양조선족은 부 30.0%, 모 25.4%, 한국은 부 35.1%, 모 19.9%로 연변한족 부모가 연령이 낮은 관계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연변조선족과 한족은 1000-2000위안의 비율이 각각 39.0%, 33.5%로 가장 높은데 반해 심양조선족은 2000-3000위안의 비율이 23.3%로 약간 더 높다. 집단별 평균값을 보더라도 연변조선족과 연변한족에 비해 심양조선족의 월평균수입이 더 많고, 월평균 교육비도 500위안 이상을 지출하는 가정이 연변조선족은 23%, 연변한족은 22%이며, 심양조선족은 34.8%로 심양조선족이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동거가족은 중국집단들은 대개 3인 가족이 가장 많으나, 한국은 4인 가족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용과 부모용의 두 가지 종류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평일과 휴일의 미디어사용 시간, 미디어 사용언어,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문항, 성취동기, 내외통제 성격특성, 가정의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중독관련 문항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사용, 가족들에게 듣는 불평정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 느끼는 무료함, 두려움, 집착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인터넷) 중독관련문항은 Young(1999)의 문항들 중 11개를 사용하였으며, 4점척도(항상그렇다 - 전혀그렇지 않다)

&lt;표 1&gt;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일반특성	구 분	연변조선족 n=600		연변한족* n=517		심양조선족 n=497		구 분	한 국 n=892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모나이	20세~30세 미만	0.0	0.0	0.2	0.0	0.0	0.2		0.1	0.2
	30세~40세 미만	34.3	55.8	57.3	75.0	35.8	57.9		20.3	47.4
	40세~50세 미만	53.5	37.7	36.0	21.1	53.3	34.4		70.9	48.2
	50세 이상	7.2	3.2	2.7	1.5	6.2	3.4		5.3	1.0
	결 측	5.0	3.3	3.9	2.3	4.6	4.0		3.3	3.1
	평균(세)	41.9	39.4	38.9	37.3	41.4	38.5		42.6	39.8
부모학력	초중(중졸) 이하	18.7	23.0	17.2	21.5	16.9	19.3		6.0	11.3
	고중(고졸)	45.8	48.3	36.6	40.8	50.1	52.3		56.8	66.3
	전과(전문대졸)	14.3	17.7	21.5	21.3	9.1	11.5		9.3	8.1
	대학 이상	17.8	8.5	20.9	14.1	20.9	13.9		25.8	11.8
	결 측	3.3	2.5	3.9	2.3	3.0	3.0		2.1	2.5
월 평 균 수 입	1000위안 미만		20.2		13.0		13.3		100만원 미만	22
	1000~2000위안 미만		39.0		33.5		22.9		100~200만원 미만	16.7
	2000~3000위안 미만		19.2		28.6		23.3		200~300만원 미만	33.5
	3000~4000위안 미만		6.2		10.8		10.9		300~400만원 미만	21.5
	4000위안 이상		4.5		5.7		16.9		400만원 이상	14.7
	결 측		11.0		8.3		12.7		결 측	11.5
	평균(위안)		1,711.1		2,144.8		2,889.7		평균(원)	2,732,709.1
월 평 균 교육비	300위안 미만		29.0		33.3		27.6		20만원 미만	14.5
	300~400위안 미만		21.8		22.6		15.5		20~40만원 미만	41.4
	400~500위안 미만		8.2		7.4		7.2		40~60만원 미만	20.4
	500~600위안 미만		14.2		13.9		15.5		60~80만원 미만	6.6
	600위안 이상		8.8		8.1		19.3		80만원 이상	9.2
	결 측		18.0		14.7		14.9		결 측	7.9
	평균(위안)		345.4		342.0		451.2		평균(원)	425,449.5
동거가족	2명 이하		14.5		9.5		10.5			0.8
	3명		48.3		58.8		46.7			9.9
	4명		23.5		20.7		24.7			60.0
	5명 이상		12.0		7.5		14.7			27.7
	결 측		1.7		3.5		3.4			1.6
	평균(명)		3.4		3.3		3.6			4.3
아동의 성별	남		46.0		50.3		44.9			53.2
	녀		54.0		47.8		54.9			44.6
	결 측		0.0		1.9		0.2			2.2

\* 연변한족 고급중학교는 부모 자료 없음.

에 응답하게 하였다. Young의 컴퓨터중독 문항들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심각한 중독집단이라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 11개 문항 44점 만점에서 32점 이상을 중독집단으로 보았다.

성취동기는 Hermans(1970)의 성취동기 측정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한 조복희 등(2004)의 6문항을 사용하였고, 내외통제척도는 민하영(1999)에서 20문항, 가정의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은 이영(1985)에서 8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척도들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집단에 따라 컴퓨터(인터넷)중독은 .68 - .87, 성취동기는 .41 - .69, 내적통제는 .63 - .85, 외적통제는 .60 - .78,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44 - .55,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70 - .85의 분포를 보였다.

부모용 설문지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부모의 학력, 연령, 직업, 월평균 수입, 동거가족의 수 등), 가정의 미디어 보유 개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변한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중국어로 설문지를 번역하는 작업은 한족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대학 중국어강사가 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학교관계자들의 협조로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학부모조사는 학생을 통해 배부하여 1주일 내에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학생의 경우는 100%, 부모의 경우는 집단에 따라 달랐으며, 65-100%의 분포를 보였다. 설문조사는 연변조선족은 2003년 6월-10월에, 심양지역과 연변한족

은 2004년 1월-3월에, 그리고 한국은 2003년 11월-2004년 3월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한국에서 코딩작업 후 윈도우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변량분석, t-검증, 상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가정의 미디어보유율

아동과 청소년 가정을 모두 합해서 미디어 종류별로 가정의 보유율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의 보유율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으며, 연변조선족 96%, 심양조선족 96.3%, 연변한족 97.4%, 한국 99.3%로 나타났다. 2대이상 보유한 가정도 연변조선족 21.4%, 연변한족 30.8%, 심양조선족 28.2%, 한국 55.0%로 한국이 중국의 집단들에 비해 크게 높았다. VCR(VCD, DVD) 보유율은 연변조

<표 2> 미디어종류별 가정에서 보유한 현황(%)

미디어종류	장 소	연변조선족					연변한족					심양조선족					한국				
		없음	1대	2대	3대 이상	평균 대수	없음	1대	2대	3대 이상	평균 대수	없음	1대	2대	3대 이상	평균 대수	없음	1대	2대	3대 이상	평균 대수
라디오/ 음향기	가정	24.0	55.0	14.7	6.4	1.19	22.1	59.0	15.7	3.2	1.01	26.3	50.7	17.4	5.6	1.10	7.9	37.3	31.3	23.4	1.78
	아동방	61.2	35.3	2.6	.9	.45	64.0	34.6	1.4	0	.37	64.6	30.2	3.9	1.2	.44	34.0	54.7	10.0	1.3	.79
오락기	가정	66.7	28.3	4.0	1.0	.44	64.2	32.0	2.8	1.0	.41	63.4	28.0	6.6	2.1	.49	67.2	24.9	6.1	1.8	.44
(캠보이 등)	아동방	83.1	14.1	2.4	.3	.24	86.1	12.9	1.0	0	.15	73.9	21.9	3.1	1.0	.32	83.2	13.9	2.3	.5	.21
카세트	가정	45.5	47.1	5.5	1.9	.66	29.4	57.9	10.3	2.4	.86	42.0	45.5	10.6	1.9	.73	11.2	47.8	27.1	13.9	1.48
녹음기	아동방	68.3	28.6	2.6	.5	.38	52.5	44.1	3.0	.4	.51	60.7	34.2	5.2	0	.45	27.3	59.9	10.9	1.9	.88
컴퓨터	가정	64.3	34.3	1.0	.3	.37	54.3	41.6	3.8	.4	.50	50.1	45.5	3.5	.8	.56	4.5	83.8	10.9	.8	1.08
	아동방	79.1	20.7	0	.2	.21	82.1	17.7	.2	0	.18	68.5	31.1	.4	0	.32	44.5	53.7	1.7	.1	.57
VCR (VCD, DVD)	가정	38.8	55.0	4.5	1.7	.79	26.6	64.8	6.8	1.8	.84	27.7	61.7	9.1	1.4	.86	32.8	58.5	7.7	.9	.77
	아동방	90.5	8.4	.5	.5	.15	89.9	9.5	.6	0	.11	85.3	13.5	1.2	0	.16	91.6	8.3	.1	0	.09
TV	가정	4.0	74.7	18.8	2.6	1.21	2.6	66.6	26.6	4.2	1.33	3.7	68.1	25.3	2.9	1.28	.7	44.3	47.8	7.2	1.62
	아동방	81.6	18.1	2	.2	.19	85.9	13.9	.2	0	.14	73.3	26.5	.2	0	.27	81.3	18.0	.4	.2	.20
휴대폰	가정	26.4	38.3	29.0	6.4	1.17	10.9	32.4	44.7	11.9	1.62	25.5	31.5	32.9	10.1	1.31	3.0	17.7	44.8	34.5	2.26
	아동방	91.4	8.3	.2	.2	.10	92.6	6.4	.8	2	.09	89.0	10.4	.6	0	.12	66.4	26.2	.65	.9	.43
전화기	가정	7.9	68.6	19.5	4.0	1.21	8.0	67.0	17.9	7.2	1.26	7.5	60.9	27.7	3.9	1.31	1.7	36.4	42.0	19.9	1.85
	아동방	77.9	21.9	0	.2	.23	79.9	19.7	.2	.2	.21	71.8	28.0	.2	0	.28	72.9	25.9	1.2	0	.28

선족 61.2%, 연변한족 73.4%, 심양조선족 72.3%, 한국 67.2%이었다. 최근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컴퓨터 보유율은 연변조선족 35.7%, 연변한족 45.7%, 심양조선족 49.9%, 한국 95.5%이었으며, 연변조선족의 보유율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심양조선족보다 낮았으며, 같은 연변지역의 한족에 비해서도 낮았다. 또한 최근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휴대폰 보유율은 연변조선족이 73.6%, 연변한족 89.1%, 심양조선족 74.5%, 그리고 한국이 97%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방 보유율을 보면 연변조선족 8.6%, 연변한족 7.4%, 심양조선족 11%가 아이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은 33.6%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라디오/음향기의 가정 보유는 연변조선족 76.0%, 연변한족 77.9%, 심양조선족 73.7%로 유사하며, 한국은 92.1%로 더 높았으며, 특히 라디오/음향기는 아동방 보유율도 집단별로 각각 38.8%, 36.0%, 35.4%, 66%로 나타났다. 또한 카세트녹음기의 가정 보유는 연변조선족 54.5%, 연변한족 70.6%, 심양조선족 58.0%, 한국 88.8%였으며, 아이들이 가진 비율도 비교적 높아 각 집단별로 31.7%, 47.5%, 29.3%, 72.7%이며, 연변조선족은 심양조선족과는 유사한 보유율을 보였으나 한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밖에 오락기(챔보이 등)는 집단별로 33%-37%로 유사한 보유율을 보였고, 전화기 보유율은 집단별로 92.1%, 92.0%, 92.5%, 98.3%였다.

## 2. 인터넷과 전자우편 이용

컴퓨터의 보유와 더불어 정보화수준을 반영하는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과 전자우편 사용여부가 초

중고 집단별로 〈표 3〉에 나와 있다. 가정에서 인터넷사용여부는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과 관계된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한국전산원, 2004)인 한국은 초등학생의 경우 92%, 중고생 96-97%에 이르렀다. 중국의 집단들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조선족과 한족 모두 25-26%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연변한족이 각각 45.5%, 38.9%로 가장 높고, 다음 심양조선족이 30.7%, 31.1%, 그리고 연변조선족이 7.9%, 19.9%로 가장 낮았다. 연변조선족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이 적은 것은 컴퓨터보급율이 중고생의 경우 심양조선족이나 한족보다 특히 낮은 까닭이다. 전자우편사용에서도 한국이 초등학생 75.4%, 중고생은 각각 97.2%, 97.4%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집단들에서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은 초등 12.5%, 중등 16.3%, 고등 84.6%로 증가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학교에서 전자우편주소를 가지도록 한 것에 기인된다. 연변한족의 경우는 초등은 65%로 조선족에 비해 낮으나 중학생이 되면 크게 증가해 32.6%로 연변조선족보다 더 높다.

## 3. 미디어종류별 이용시간

### 1)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종류별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표 4〉에 나와 있다. 미디어별로 평일과 휴일 이용시간에서 국가/민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휴일 TV보기’와 ‘평일 핸드폰게임’ 시간

〈표 3〉 인터넷 및 전자우편 사용여부 (%)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연변 조선족	연변 한족	심양 조선족	한국	연변 조선족	연변 한족	심양 조선족	한국	연변 조선족	연변 한족	심양 조선족	한국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여부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24.5 75.5	25.5 74.5	25.7 74.3	91.8 82	7.9 92.1	45.5 54.5	30.7 69.3	96.9 3.1	19.0 81.0	38.9 61.1	31.1 68.9	96.1 3.9
전자우편 사용여부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12.5 77.9	6.5 93.5	15.3 84.7	75.4 24.6	16.3 83.7	32.6 67.4	21.4 78.2	97.2 2.8	84.6 15.4	49.3 50.7	44.4 55.6	97.4 2.6

〈표 4〉 미디어 종류별 하루 평균 이용시간(분)

미디어종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변 조선족 n=258	연변 한족 n=202	심양 조선족 n=208	한국 n=367	연변 조선족 n=210	연변 한족 n=277	심양 조선족 n=213	한국 n=301	연변 조선족 n=146	연변 한족 n=297	심양 조선족 n=372	한국 n=390
음악듣기	평일 48.9 <sup>a</sup>	37.6 <sup>b*</sup>	24.4 <sup>a</sup>	37.7 <sup>b</sup>	31.9 <sup>ab</sup>	41.2 <sup>b</sup>	28.4 <sup>a</sup>	40.7 <sup>b</sup>	36.0 <sup>ab</sup>	43.6 <sup>a</sup>	51.5 <sup>a</sup>	70.4 <sup>b</sup>
	휴일 39.3 <sup>a</sup>	39.3 <sup>a</sup>	66.7 <sup>b</sup>	49.7 <sup>a</sup>	89.8 <sup>c</sup>	57.2 <sup>a</sup>	75.4 <sup>bc</sup>	61.5 <sup>ab</sup>	97.3 <sup>a</sup>	92.7 <sup>a</sup>	122.7 <sup>b</sup>	109.1 <sup>ab</sup>
TV 보기	평일 156.4 <sup>a</sup>	91.5 <sup>ab</sup>	81.8 <sup>a</sup>	103.3 <sup>b</sup>	128.6 <sup>c</sup>	92.0 <sup>b</sup>	61.7 <sup>a</sup>	96.7 <sup>b</sup>	94.1 <sup>b</sup>	78.9 <sup>b</sup>	22.3 <sup>a</sup>	107.1 <sup>c</sup>
	휴일 158.1 <sup>a</sup>	158.1 <sup>a</sup>	184.5 <sup>a</sup>	180.0 <sup>a</sup>	213.3 <sup>c</sup>	141.7 <sup>a</sup>	180.4 <sup>b</sup>	177.4 <sup>b</sup>	180.2 <sup>b</sup>	99.0 <sup>a</sup>	224.4 <sup>c</sup>	197.0 <sup>b</sup>
VCR 보기 (VCD, DVD포함)	평일 68.3 <sup>c</sup>	50.2 <sup>c</sup>	24.1 <sup>a</sup>	38.9 <sup>b</sup>	20.5 <sup>a</sup>	38.9 <sup>b</sup>	12.5 <sup>a</sup>	35.6 <sup>b</sup>	9.7 <sup>a</sup>	16.6 <sup>b</sup>	2.7 <sup>a</sup>	48.1 <sup>c</sup>
	휴일 47.9 <sup>b</sup>	47.9 <sup>b</sup>	61.9 <sup>c</sup>	26.4 <sup>a</sup>	102.0 <sup>c</sup>	41.3 <sup>a</sup>	60.6 <sup>b</sup>	25.8 <sup>a</sup>	63.4 <sup>b</sup>	24.3 <sup>a</sup>	104.2 <sup>c</sup>	25.3 <sup>a</sup>
컴퓨터 게임	평일 61.4 <sup>b</sup>	41.5 <sup>b</sup>	17.7 <sup>a</sup>	31.2 <sup>ab</sup>	78.6 <sup>c</sup>	41.4 <sup>b</sup>	11.3 <sup>5a</sup>	31.7 <sup>b</sup>	59.5 <sup>c</sup>	12.9 <sup>ab</sup>	2.0 <sup>a</sup>	22.9 <sup>b</sup>
	휴일 32.5 <sup>a</sup>	53.3 <sup>b</sup>	53.3 <sup>b</sup>	111.3 <sup>c</sup>	56.5 <sup>a</sup>	45.2 <sup>a</sup>	56.9 <sup>a</sup>	111.8 <sup>b</sup>	40.5 <sup>ab</sup>	20.2 <sup>a</sup>	58.4 <sup>b</sup>	105.0 <sup>c</sup>
컴퓨터 사용 (게임 제외)	평일 46.1 <sup>c</sup>	34.6 <sup>b</sup>	13.7 <sup>a</sup>	22.4 <sup>a</sup>	40.1 <sup>b</sup>	35.6 <sup>bc</sup>	14.3 <sup>a</sup>	25.0 <sup>ab</sup>	47.3 <sup>c</sup>	15.7 <sup>ab</sup>	7.1 <sup>a</sup>	20.9 <sup>b</sup>
	휴일 21.2 <sup>a</sup>	21.2 <sup>a</sup>	47.4 <sup>c</sup>	43.8 <sup>a</sup>	39.4 <sup>a</sup>	37.1 <sup>a</sup>	66.5 <sup>b</sup>	39.1 <sup>ab</sup>	26.5 <sup>a</sup>	48.0 <sup>b</sup>	109.4 <sup>c</sup>	
핸드폰 게임	평일 14.6 <sup>ab</sup>	9.9 <sup>a</sup>	7.5 <sup>a</sup>	11.5 <sup>a</sup>	8.8 <sup>a</sup>	20.4 <sup>b</sup>	5.5 <sup>a</sup>	9.5 <sup>ab</sup>	3.3 <sup>a</sup>	1.3 <sup>a</sup>	2.8 <sup>a</sup>	9.3 <sup>b</sup>
	휴일 13.7 <sup>ab</sup>	14.6 <sup>ab</sup>	16.9 <sup>b</sup>	6.7 <sup>a</sup>	9.7 <sup>ab</sup>	11.0 <sup>ab</sup>	13.7 <sup>b</sup>	3.6 <sup>a</sup>	2.7 <sup>a</sup>	4.2 <sup>a</sup>	13.4 <sup>b</sup>	7.9 <sup>ab</sup>
비디오방가기	평일 6.9 <sup>b</sup>	3.8 <sup>ab</sup>	0.6 <sup>a</sup>	9.7 <sup>b</sup>	6.6 <sup>ab</sup>	27.0 <sup>b</sup>	0.6 <sup>a</sup>	6.0 <sup>a</sup>	1.3 <sup>a</sup>	2.8 <sup>a</sup>	0.3 <sup>a</sup>	7.4 <sup>b</sup>
	휴일 1.1 <sup>a</sup>	1.1 <sup>a</sup>	15.3 <sup>c</sup>	5.7 <sup>ab</sup>	23.8 <sup>c</sup>	0.9 <sup>a</sup>	9.3 <sup>b</sup>	2.4 <sup>a</sup>	3.4 <sup>a</sup>	0.6 <sup>a</sup>	16.2 <sup>b</sup>	1.6 <sup>a</sup>
PC방 가기	평일 6.4 <sup>a</sup>	4.2 <sup>a</sup>	0.1 <sup>a</sup>	11.5 <sup>b</sup>	22.7 <sup>c</sup>	41.1 <sup>b</sup>	5.6 <sup>a</sup>	7.7 <sup>a</sup>	14.4 <sup>a</sup>	22.2 <sup>b</sup>	2.4 <sup>a</sup>	33.6 <sup>c</sup>
	휴일 26.4 <sup>b</sup>	26.4 <sup>b</sup>	32.4 <sup>b</sup>	65.8 <sup>b</sup>	14.9 <sup>a</sup>	18.2 <sup>a</sup>	27.8 <sup>a</sup>	65.2 <sup>b</sup>	27.3 <sup>a</sup>	69.0 <sup>b</sup>	19.2 <sup>a</sup>	
전자온락실 가기	평일 7.2 <sup>b</sup>	4.3 <sup>ab</sup>	0.2 <sup>a</sup>	8.5 <sup>bc</sup>	12.8 <sup>bc</sup>	12.2 <sup>c</sup>	24.4 <sup>b</sup>	1.0 <sup>a</sup>	4.6 <sup>a</sup>	2.1 <sup>a</sup>	1.6 <sup>a</sup>	0.3 <sup>a</sup>
	휴일 12.8 <sup>bc</sup>	14.7 <sup>c</sup>	31.6 <sup>b</sup>	31.6 <sup>b</sup>	3.1 <sup>a</sup>	8.2 <sup>a</sup>	3.9 <sup>a</sup>	9.7 <sup>b</sup>	1.1 <sup>a</sup>	7.1 <sup>ab</sup>	21.7 <sup>c</sup>	

\* 상이한 알파벳 위첨자는 p<0.05수준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의미

만을 제외하고 모든 미디어 이용시간에서 국가/민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각 미디어별로 아동의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디어 중에서도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였다. 평일시청시간을 보면, 연변한족아동이 82분으로 가장 적게 TV를 시청하였고, 연변과 심양의 조선족 아동은 92분, 103분으로 중간에, 그리고 한국아동이 129분으로 가장 많이 TV를 시청했다. 연변한족과 연변조선족간, 그리고 연변조선족과 심양의 조선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아동은 다른 집단들 보다 유의하게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아동의 휴일 TV시청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에 이르며, 국가/민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VCR(VCD, DVD포함)보기에 보내는 시간은 연변조선족 50분(평일), 68분(휴일), 그리고 심양조선족 39분(평일), 62분(휴일)으로 조선족들이 한족(평일

24분, 휴일48분)이나 한국(평일 21분, 휴일 26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변조선족은 평일에는 심양조선족 보다도 유의하게 많은 시간을 VCR 보기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게임에는 컴퓨터보급률이 높은 한국이 조선족이나 한족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즉, 한국아동의 이용시간이 평일 79분, 휴일 111분에 이르고, 다음 연변조선족(평일 42분, 휴일 61분), 심양조선족(평일 31분, 휴일 53분)의 순이며 한족아동(평일 18분, 휴일 33분)이 가장 적게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조선족 아동과 심양조선족 아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변조선족과 연변한족 아동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게임을 제외한 컴퓨터 사용시간도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역시 한국 아동(평일, 40분, 휴일 47분)이 많았으나 연변조선족 아동(평일 35분, 휴일 46분)도 한국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들

집단은 연변한족(평일 14분, 휴일 21분)이나 심양조선족 아동(평일 22분, 휴일 35분)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게임 외에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핸드폰을 활용한 게임은 집단별로 7분에서 17분에 이르는 정도로 아동들의 이용시간이 적으며, 휴일에만 국가/민족간 차이가 유의했는데, 심양조선족 아동이 17분으로 가장 적은 한국의 7분보다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비디오방/PC방/전자오락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아동의 비디오방 가기의 시간은 대부분 매우 적었으나, 특히 심양조선족 아동이 휴일 15분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PC방은 연변한족 아동은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연변조선족 아동은 5분 내외로 적게 이용하나, 심양조선족(평일 12분, 휴일 26분)은 연변조선족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이용하나, 한국아동(평일 23분, 휴일 32분)에 비해서는 휴일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일 이용시간은 한국보다 적었다. 마찬가지로 전자오락실 이용시간도 연변한족 아동은 거의 가지 않고, 연변조선족 아동은 평일 4분, 휴일 7분 정도로 적게 이용하나, 심양조선족(평일 9분, 휴일 13분)과 한국(평일 12분, 휴일 15분) 아동은 더 많이 이용했다.

아동이 MP3나 카세트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들는데 보내는 시간은 평일의 경우 심양조선족(38분)과 연변조선족(38분) 아동이 한국(32분)보다 음악을 유의하게 더 많이 들었으며, 연변한족(24분)이 가장 적었다. 휴일에는 심양조선족(67분) 아동이 연변조선족 아동보다도 음악듣는 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 2)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종류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미디어별로 평일과 휴일 이용시간 각각에 대해 국가/민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변량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휴일 핸드폰게임’을 제외하고는 중고생 모두 모든 미디어 이용시간에서 국가/민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아동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였다.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연변한족이 조선족이나 한국에 비해 가장 적은 시간을 시청하였다. 조선족들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중학생의 경우 연변조선족의 휴일 시청시간이 213분으로 심양조선족(142분)이나 한국(177분)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심양조선족은 평일 107분, 휴일 224분 TV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나 연변조선족 보다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다. 청소년의 VCR(VCD, DVD) 시청에서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평일과 휴일 모두 연변과 심양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이나 한족에 비해 VCR 시청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휴일 VCR시청시간을 보면, 연변조선족 중학생은 102분, 심양중학생은 61분인데 반해 한족과 한국중학생은 각각 41분, 26분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심양조선족이 가장 많아 104분, 다음 연변조선족이 63분인데 반해 한국과 한족은 각각 26분, 24분으로 훨씬 적었다. 평일에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다.

컴퓨터게임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보급율이 높은 한국이 조선족이나 한족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국 중학생은 평일 59분, 휴일 112분을 컴퓨터게임에 보내고 있으며, 연변한족은 평일 11분, 휴일 45분으로 가장 적게 이용했다. 연변조선족과 심양조선족은 그 중간에 위치했는데, 특히 연변조선족은 같은 지역의 한족 보다 평일 사용시간은 유의하게 더 많았다(41분 대 11분).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평일에는 특히 컴퓨터게임 시간이 더 적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역시 한국학생들이 타집단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으로 보내고 있었다. 같은 연변지역의 한족과 조선족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게임을 제외한 컴퓨터 사용시간도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역시 한국 중학생(평일 47분, 휴일 66분)과 고등학생(평일 53분, 휴일 111분)이 다른 집단들 보다 훨씬 더 많았다. 연변조선족과 심양조선족은 사용시간이 유사하며, 연변의 한족과 조선족도 비슷하나 중학생의 평일 사용에 있어서만 조선족(36분)이 한족(14분) 보다 배 이상 많은 시간을 컴퓨터를 사용하며 보냈다. 휴일 핸드폰을 활용한 게임시간은

중학생의 경우 유일하게 국가/민족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평일에는 연변조선족이 21분으로 연변한족(6분)이나 한국(3분)보다 더 많이 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심양조선족이 평일 9분, 휴일 13분으로 다른 집단들 보다 핸드폰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방가기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연변의 한족이나 한국학생들은 1, 2분 정도로 거의 가지 않고, 심양의 조선족은 10분 이내인데 반해, 연변조선족은 평일 27분, 휴일 24분으로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한족이나 한국은 거의 가지 않는 점은 같으나, 이번에는 연변조선족은 3분 정도로 적었고 심양학생들이 평일 7분, 휴일 16분으로 다소 많게 나타났다. PC방 이용은 중학생의 경우, 연변조선족 학생들이 평일 41분, 휴일 66분으로 타집단 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변조선족 뿐만 아니라 심양조선족 학생들도 한족이나 한국학생보다 PC방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오락실가기는 중학생의 경우 PC방과 마찬가지로 연변조선족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이용시간이 평일 24분, 휴일 32분으로 많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한국 학생이 타집단에 비해 전자오락실 이용이 더 많았다.

MP3나 카세트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데 보내는 시간은 중학생의 경우 평일과 휴일 모두에서 연변조선족(41분, 90분), 심양조선족(41분, 75분), 한국(36분, 61분), 연변한족(23분, 57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변지역에서 조선족이 한족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음악듣기에 보내는 시간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데, 중학생과 달리, 한국(평일 72분, 휴일 110분)과 심양조선족(평일 70분, 휴일 123분)이 가장 음악듣기를 많이 하고 연변조선족(44분, 97분)이나 연변족(52분, 93분)은 이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 4. 미디어 이용시간, 컴퓨터중독과 영향요인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개인적 특성 및 환경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TV보기', 그리고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컴퓨터게임', '게임외 컴퓨터사용', 'PC방가기' 시간과 아이들의 성취동기, 내적통제 및 외적통제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가정의 심리적 및 물리적 환경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5). 심양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변인은 조사가 되지 않아 상관관계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미디어종류별 이용시간은 평일과 휴일의 이용시간을 합하여 주 평균이용시간을 산출하여 상관분석에 사용하였다.

성취동기와 미디어이용시간 간의 상관은 주로 한국집단들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아동에게서 성취동기와 컴퓨터게임시간( $r=-.13$ ), 게임외 컴퓨터사용시간( $r=-.15$ ), PC방가기시간( $r=-.17$ ) 간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아동의 성취동기가 낮을 수록 컴퓨터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시간들이 더 많았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도 성취동기와 컴퓨터게임시간( $r=-.24$ ), PC방가기시간( $r=-.12$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TV시청시간도 성취동기와 유의한 부적상관( $r=-.14$ )이 있었다. 한국집단외에는 유일하게 연변조선족 청소년에게서 성취동기와 컴퓨터게임시간간 부적상관( $r=-.20$ )이 유의하였다.

미디어이용시간과 내적통제 간 유의한 상관관계도 주로 한국집단에서 발견되었는데, 한국아동과 청소년 모두 내적통제수준과 컴퓨터게임시간(초등  $r=-.18$ ; 중고  $r=-.14$ ) 및 PC방가기시간( $r=-.16$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국집단외에는 유일하게 연변조선족 청소년이 내적통제와 컴퓨터게임시간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미디어이용시간과 외적통제수준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거의 없었으나 유일하게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TV보기시간과 외적통제와 유의한 상관( $r=.18$ )을 보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미디어 이용시간과는 유의한 상관이 드문편이었는데, 한국청소년에게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컴퓨터게임시간( $r=-.11$ )간, 그리고 PC방 가는 시간( $r=-.18$ )간 부적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의 경우는 유일하게 연변한족 아동에게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게임외 컴퓨터사

&lt;표 5&gt; 미디어 종류별 시청시간, 컴퓨터중독과 성취동기, 내외통제, 가정환경 간의 상관(r)

미디어 종류	초 등			중·고		
	연변조선족 n <sup>a</sup> =258	연변한족 n=202	한국 n=367	연변조선족 n=356	연변한족 n=574	한국 n=691
성취동기	TV보기	-.06	-.04	-.08	-.04	-.03
	컴퓨터게임	-.08	.03	-.13*	-.20*	.06
	컴퓨터사용	.04	.11	-.15*	-.09	.04
	PC방가기	-.04	.04	-.17**	-.05	-.09*
	컴퓨터 중독	-.23**	.04	-.08	-.11	-.04
내적통제	TV보기	.07	-.07	-.06	-.03	-.03
	컴퓨터게임	-.02	.01	-.18**	-.22*	.08
	컴퓨터사용	.13	.02	-.07	-.01	.06
	PC방가기	.01	.12	-.18**	-.14	-.07
	컴퓨터 중독	-.26***	-.04	-.09	-.00	-.04
외적통제	TV보기	-.03	-.10	.06	.18*	-.03
	컴퓨터게임	-.04	.09	.02	.01	.01
	컴퓨터사용	.05	-.13	.04	-.01	.01
	PC방가기	.07	.04	.02	.18	.04
	컴퓨터 중독	.10	.18*	.13*	.18*	.14**
가정의 심리적 환경	TV보기	-.08	-.07	.05	-.05	.04
	컴퓨터게임	.12	.05	-.06	.02	.03
	컴퓨터사용	.11	.26**	-.04	-.06	-.00
	PC방가기	-.01	.15	-.07	.03	-.03
	컴퓨터 중독	.01	.03	-.13*	-.07	-.06
가정의 물리적 환경	TV보기	-.08	-.07	-.02	.04	.01
	컴퓨터게임	.02	.12	-.05	.18	.14**
	컴퓨터사용	.08	.21**	.07	.22*	.21***
	PC방가기	-.05	.17*	-.07	.10	-.04
	컴퓨터 중독	-.03	.15	-.02	.01	-.01

\* p&lt;.05 \*\*p&lt;.01 \*\*\*p&lt;.001

<sup>a</sup> missing으로 각 cell의 사례 수가 다름.

용시간간 유의한 정적상관( $r=.26$ )이 나타났다. 즉 한족아동의 경우 가정의 심리적인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게임을 제외한 컴퓨터사용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미디어 이용시간 간에는 심리적환경에 비해 유의한 상관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아동의 경우에는 연변한족 아동에게서만 가정의 물리적환경과 컴퓨터사용시간 ( $r=.21$ ), 그리고 PC방가기( $r=.17$ )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에게서는 가정의 물리적환경과 TV시청시간( $r=-.22$ ), 컴퓨터게임시간( $r=-.14$ ), PC방가기시간( $r=-.12$ )간 부적상관이 유의한 반면, 연변한족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의 물리적환경과 컴퓨터게임시간( $r=.14$ ) 및 게임외 컴퓨터사용시간( $r=.21$ ) 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연변조선족 청소년에게서도 게임외 컴퓨터사용시간과 정적상관( $r=.22$ )이 유의하였다.

컴퓨터(인터넷) 중독에 관한 문항들에서 44점 만점에 33점 이상인 아이들(컴퓨터중독집단)의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한국 고등학생이 8.5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집단은 1% 이하로 나타났다. 컴퓨터(인터넷) 중독 문항들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의 반응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컴퓨터에 접속하고 있다'에 22.7%가 '항상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고, '컴퓨터가 없다면 인생이 채

'비없을 것이라는 누려움을 느낀다'에도 16.1%, '늦은 밤 컴퓨터 사용으로 인하여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다'에도 14.0%가 '항상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컴퓨터중독점수와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들과 가정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표 5), 아이들의 외적통제수준과 컴퓨터중독 간에 비록 높지는 않지만 유의한 상관을 대부분의 집단에서 볼 수 있었고, 가정의 심리적 및 물리적 환경과 컴퓨터중독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각각  $r=-.23$ ,  $r=-.28$ )을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 5. 미디어종류별 조선어 및 중국어 사용정도

미디어 종류별로 아동과 청소년의 조선어 및 중국어 사용비율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경우 연변과 심양 조선족 모두 TV는 조선어와 한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컴퓨터는 중국어의 비중이 더 높으며, 라디오, 책, 신문/잡지는 조선어의 비중이 높다. 심양의 아동도 연변의 아동과 미디어에 따른 조선어/중국어 비중의 방향은 동일하나 모든 미디어에서 중국어사용 비율이 연변 아동 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는 연변과 심양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였다. 즉 심양 조선족 청소년들은 모든 미디어에서 중국어 비중이 더 높은데 반해 연변 청소년들은 TV를 제외하고는 컴퓨터까지도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서 여

전히 조선어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변한족 청소년들도 TV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반반씩 사용한다거나 혹은 조선어를 더 사용한다는 응답이 18%, 그리고 라디오는 13%정도, 나머지 미디어도 8-10%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 및 개방의 영향과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시 및 요녕성 심양시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이용실태를 한국 및 연변의 한족과 비교하였고, 미디어이용시간과 개인적 및 가정환경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보유율은 연변조선족 가정(35.7%)이 심양조선족(49.9%)이나 한족가정(45.7%) 보다 낮은 편이었고, 컴퓨터보유와 관련되는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율도 연변조선족이 가장 낮고, 심양조선족, 한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TV보유율은 집단별로 96-99%이 이르고, VCR보유율은 연변조선족 가정(61.2%)이 심양조선족(72.3%)이나 연변한족(73.4%) 보다 낮았다. 대체로 연변조선족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심양조선족이, 그리고 같은 연변지역에서는

<표 6> 미디어 종류별 조선어와 중국어 사용비율(%)

미디어 종류	초 등						중·고								
	연변조선족 n=258			심양조선족 n=208			연변조선족 n=356			심양조선족 n=585			연변한족 n=574		
	조선어*	반반	중국어**	조선어	반반	중국어	조선어	반반	중국어	조선어	반반	중국어	조선어	반반	중국어
TV	27.8	38.7	33.5	26.5	39.0	34.5	17.7	37.1	45.2	18.5	33.1	48.4	2.0	15.9	82.1
라디오	55.6	23.5	20.9	36.9	31.0	32.1	64.6	24.6	10.8	17.1	22.3	60.6	2.2	10.1	87.7
컴퓨터	27.6	26.7	45.6	23.7	26.0	50.3	42.4	35.4	22.2	6.3	21.7	72.0	1.1	7.2	91.7
책	56.0	35.6	8.4	44.9	44.4	10.7	51.0	38.3	10.7	23.6	49.3	27.1	0.4	8.6	91.0
신문/잡지	62.7	29.9	7.5	45.0	40.3	14.7	57.9	33.7	8.4	22.5	41.6	35.9	0.6	9.2	90.2

\* '항상 조선어'와 '대개 조선어'를 합친 비율임.

\*\* '항상 한어'와 '대개 한어'를 합친 비율임.

조선족보다 한족이 더 미디어보유율에서 높은 편이었고, 아직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지만,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미디어보유율도 계속 증가될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미디어이용시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 아직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TV보기였으며, 한국아동이 특히 평일(129분) 다른 집단들 보다 TV를 더 많이 보았다. 1999년 한국방송진흥원의 9살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한국 아동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이 약 2시간이었는데, 본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하여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24개국 초등학교 4학년의 방과후 여가시간에 관한 조사(국제교육성취도평가학회IEA, 1997)에 의하면, 한국 초등학생의 여가시간이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 가장 적고 여가시간을 TV나 비디오를 보는 데 가장 많이 할애하여 아이들의 여가활동이 매우 제한됨을 볼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TV시청은 특히 휴일 조선족(연변조선족 중학생 213분, 심양조선족 고등학생 224분)이 한국이나 연변한족 학생보다 더 많았다.

VCR(VCD, DVD)시청은 연변과 심양의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이 각각 한족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하였다.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들이 VCR시청 시간이 더 많은 데는 한국문화(영화, 게임)의 인기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사용 시간은 컴퓨터보유율에서 시사되듯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한국이 월등히 많았고, 다음 연변과 심양의 조선족, 그리고 한족이 가장 적게 이용했다. 연변의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이 비록 컴퓨터보유율에서는 연변한족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게임과 인터넷을 포함하여 컴퓨터사용시간에서 한족보다 더 많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아울러 PC방도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이나 연변한족 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 PC방과 같은 한국 인터넷문화가 조선족 사회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이용에 대한 적절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에 조선족사회가 맞고 있는 부모부

재현상이 그 부작용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성이 크다.

셋째, 컴퓨터(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은 한국 고등학생중 8.5%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서는 1%미만이었다. 그러나 조선족 중고생들도 연변한족에 비해서는 컴퓨터이용시간과 PC방 이용이 많아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유해사이트 문제 등이 대두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컴퓨터이용에 관련한 학교에서의 적절한 교육과 부모교육, 사회기관들의 대비가 조선족사회에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미디어이용시간(TV, 컴퓨터관련)과 영향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달랐는데, 특히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 연변조선족 청소년에게서 컴퓨터게임, PC방가기 시간과 성취동기, 내적통제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한국 청소년의 이러한 컴퓨터관련 이용시간들은 또한 가정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과도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 연변한족에게서는 아동의 게임외 컴퓨터사용시간, 청소년의 게임을 포함하여 컴퓨터사용시간과 가정의 물리적환경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컴퓨터사용시간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컴퓨터보급이나 사용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변한족의 경우에는 가정의 환경이 좋을수록 더 보유하고, 사용시간도 많으나, 이미 한국처럼 보편화되고 사용시간이 많은 수준에서는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지나친 사용을 억제하는 것 같다. 컴퓨터중독점수와는 외적통제가 대부분 집단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 인과의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디어 종류별 조선어와 중국어 사용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경우 TV는 대체로 반반, 컴퓨터는 중국어, 라디오, 책, 신문잡지는 조선어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변과 심양이 유사했으며, 매체에 따라 다른 아동의 이중언어접근성이 성에 연유되는 것으로 보인다(박혜원외, 2004). 즉 조선족소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므로 책은 조선어, 그리고 부모의 영향으로 신문, 잡지에 조선어 사용비율이 높으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중국어 위주로 되어 있어 컴퓨터 이용시에는 중국어 사용비율이

높다. 연변자치주에도 이중언어로 방송되는 연변 제1TV방송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32.4%가 조선어로 방송될 때로이지만(이귀옥 외, 2003), 조선족 가정에서는 케이블방송을 통해 한국 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TV시청시 조선어이용도 중국어 만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중국문화에 보다 더 흡수되어 살고 있는 심양 청소년들은 모든 미디어에서 아동 보다 중국어의 사용 비중이 더 높아졌지만, 연변 청소년들은 TV에서는 그러나 컴퓨터사용시는 오히려 조선어 비중이 더 높아졌고 여전히 조선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미디어는 특정언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그 특정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심양지역의 조선족청소년들의 이중언어사용능력과 조선족이라는 민족정체감은 이러한 미디어이용경향으로 인해 더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특히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기초조사로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향후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조선족 학생의 경우 대도시 심양 조선족에 비해 경제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IT 산업이 발달된 한국의 영향으로 컴퓨터의 이용자체가 높다는 것은 이 지역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은 다른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를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앞으로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러한 한국의 영향에 대한 지각,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민족 정체감이나 정치적인 사안은 조사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며 특히 최근에 동북공정을 들어 고구려사 문제를 표면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조선족 특히 조선족 아동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심층적 연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 사료된다.

둘째, 미디어 특히 컴퓨터 게임과 PC 방의 사용과 성취동기, 내적 통제등 사회성격적인 발달간에 부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는데 특히 조

선족 학생의 미디어 사용이 한족보다 높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할 사안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조선족의 심리적인 적응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연변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것외에도 물질지향적 가치, 향락산업의 배급등 부정적인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어두운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은 조선족이 중국 사회로 이동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조선족 자치주의 미래를 고려하는 민족 교육과 정책개발도 필요한 실정이다.

## ■ 참고문헌

- 김광웅, 유미숙, 이지항(2004). 인터넷중독 여부에 따른 온라인 대인관계성향과 대면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아동학회지*, 25(2), 109-120.
- 김남정(2001). 아동의 TV시청과 인성특성간의 관계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유미(2000). 아동의 생활환경이 인터넷경험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종범(1999).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연구 -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프로그램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부 일반정책연구보고. 02-GP-11.
- 김춘경(1991). 비디오게임과 아동의 인성특성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류병희(1997).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컴퓨터사용과 가치관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문혁준(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TV/비디오시청 중재와 아동발달특성. *아동학회지*, 25(1), 47-60.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구연(2001). 가족기능과 자아개념이 고등학생의 컴퓨터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은(1994). 아동의 TV 및 비디오 시청과 창의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혜(2001). 컴퓨터 게임 몰입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애서(1986). 어린이들의 TV시청과 인쇄매체 접촉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인(2000). 아동의 TV 시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 박문태(1998). 아동의 미디어이용과 아동의 지능, 문제행동 및 가족환경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3-18.
- 박혜원, 원영미, 이귀옥(2004). 연변조선족 아동의 미디어 환경 및 미디어이용실태와 이중언어발달. 대한가정학회지, 42(1), 181-195.
- 배영(2001). 서울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사회발전연구, 7, 237-260.
- 서주현, 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50-166.
- 성영혜, 아주연(2000). 일반 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대아동연구, 14(2), 91-110.
- 손경애(2001). 한국 고등학생의 PC 이용격차 경로분석연구. 교육행정연구, 19(2), 135-162.
- 송숙자, 심희옥(2003). 아동의 컴퓨터게임 몰두성향과 심리사회 및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5), 27-41.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능력이 인터넷 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혜숙(2002). 아동의 컴퓨터게임 몰입정도와 인성특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종렬(1993). 아동의 컴퓨터게임 활용 실태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재희(1998). 인터넷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 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원영미, 김영주, 박태수, 나은영(2003). 중국 연변조선족아동의 이중언어환경. 부산: 서림출판사.
- 이미섭(1996). 아동의 TV시청과 성격특성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애(2001).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7(1), 57-83.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1985). 0-3세용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연세논총, 21(3), 379-397.
- 이해경(2001).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 정광식(1993). 아동의 TV 시청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보통신부(2004). 2003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요약보고서). 서울: 정보통신부.
- 조남근, 양동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91-111.
-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2004). 연변조선족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아동학회지, 25(3), 127-140.
- 채병건(1995). 가정의 미디어 환경이 청소년의 컴퓨

- 터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민정(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우울감, 자기효능감 및 갑각추구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2). 아동발달 백서 2001. 서울: 한솔교육.
- 한국전산원. (2004). 2004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2004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연구원.
- 허청선, 이광호(1995).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 특성과 위기에 대한 재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1, 60-80.
- 황상민(2000). 정보서비스의 이용과 사이버공간의 활용에서 나타난 세대간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45-158.
- 황상민, 황희영, 이수진(2001). 인터넷중독현황 및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Anderson, D. R. & Collins, P. A. (1988). *The Impact on Children's education: Television's influence on cognitive developmen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Borzekowski, D. L. G., & Rickert, V. I. (2001). Adolescents, the Internet, and health issues of access and content. *Applied Developmental*

- Psychology*, 15, 241-248.
- Colwell, J., & Payne, J. (2000). Negative correlates of computer game play in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1(3), 295-313.
- Griffiths, M. (1997). Computer game playing in early adolescence. *Youth & Society*, 29(2), 223-238.
- Griffiths, M., Miller, M., Gillespie, T. & Sparrow, P. (1999). Internet Usage and 'internet addiction' stud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learning.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15, 85-90.
- Hermans, H. J. (1970). A questionnaire meas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 353-363.
- Liebert, R. M., & Sprafkin, J. (1988). *The early window: Effects of television on children and youth*. (3rd ed.). New York: Pergamon Press.
- Stewart, K. & Choi, H. P. (2003). PC-Bang (Room) Culture: A study of Korean college students' private and public use of computers and internet. *Trends in Communication*, 11(1), 63-79.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 Creek, and T. Jackson (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Vol. 17).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2004년 8월 31일 접수, 2004년 12월 6일 채택)